



■ 오 경 록

- 남덕에스피에프 대표
- 의학박사

1. 육계의 마렙병 폐기율 감소 대책

육계에서 도계검사시 마렙병으로 인한 폐기율을 줄이기 위하여 2주령까지 조기 감염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대책을 실시하였다.

대책을 실시한후 육계의 마렙병 폐기율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마렙병 대책으로 조기감염을 억제하는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전의 보고와 일치하는 것이다.

금후에도 조기 감염억제 대책과 함께 마렙병 폐기율의 추적조사도 시도하였다.

감보로병과 닭 빈혈 바이러스 감염증이 마렙병 발병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험 농장의 육계에서는 병리학적, 혈청학적 검사성적에서 감보로병과 닭 빈혈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조기 감염억제대책이 얻은 또 다른 효과로 볼수 있다.

2주령까지 어린 초생추가 사육되는 계사의 환기구에서 채취한 먼지와 계분장의 우모에서 마렙병의 유전자를 검출하였으나 감염성이 있는 야외주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어린 초생추가 사육되는 계사에 마렙병 바이러스의 침입과 조기 감염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며, 마렙병 예방에 환경위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JSPD, 2001. 12)

2. 갈색란의 혈반 발생 억제

최근 소비자는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계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갈색란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갈색란은 백색란에 비하여 육반이나 혈반의 발생율이 높은 것이 결점이다.

야마나시현 축산 시험장에서는 계란의 소비 확대와 산란계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타민 A의 점막각화 방지와 상피조직의 정상유지 기능을 이용하여 난소, 수란관의

출혈을 억제하므로써 계란중의 혈반의 발생을 억제할수 있는지를 사료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사양관리 중에서 스트레스가 혈반의 한 요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강제환우의 유무가 혈반의 출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조사하였다.

- (1) 산란성은 사료중 비타민 A의 첨가에 따른 영향은 없었다.
- (2) 강제환우에 따라 난각질은 향상되었으나, 비타민 A의 급여에 의한 난질의 영향은 보이지 않았다.
- (3) 사료중의 비타민 A의 첨가에 따라 혈반의 출현수는 감소하였다.
- (4) 사료중의 비타민 A의 첨가, 강제환우 실시의 유무가 육반의 출현수에 미치는 영향은 보이지 않았다.

(NK. 2002. 5)

3. 육계의 흉부수종 발생방지

육계에서 흉부수종의 발생은 도계시 폐기원인이 되므로 발생방지는 중요한 과제이다.

흉부수종은 발육이 양호하고 체중이 양호한 계군, 추운 계절에 생산된 계군에서 발생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mith는 습한 깔짚에서 사육한 육계에서 흉부수종이 많은 것을 보고하였고, 습한 깔짚은 습도가 높은 공기, 환기 불량, 급수장치에서의 누수, 과도한 사육밀도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케이지에서 육성하면 평사 육성과 비교하여 발생율이 높고, 이는 케이지 바닥이 안정되지 못하여 닭이 보행을 꺼리고 앉아있는

자세를 많이 취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기후현 축산 연구소에서는 평사육성에서는 습도를 낮추기 위하여 깔짚교환을 실시하고 케이지 사육에서는 바닥을 보강하여 안정성을 높여 육계를 육성하면서 흉부수종의 발생을 검토하였다.

케이지 육성의 폐사율을 처리군과 대조군간에 비교하면 바닥 보강 처리군이 낮으며, 가을철에 2.6%, 겨울철에 1.1%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평사에서 처리군(깔짚교환)과 대조군에서 폐사율은 동일하였다.

부검시에는 주요 폐사원인은 돌연 폐사증후군, 복수증, 뇨산 침착증 등이었다.

흉부수종의 발생율도 폐사율과 동일하게 처리군이 대조군보다 낮았으나 유의차는 케이지에서 가을에 육성한 처리군과 대조군간에 인정되었다. 기타 양시험계군간에는 유의차가 인정되지않았다.

흉부수종은 체중이 큰 닭에서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을의 육성에서 8주령 체중이 적었던 것도 발생율이 적었던 것으로 본다.

한편 2회의 실험결과를 종합하여 처리군과 대조군을 비교하면 흉부수종의 발생율은 처리군이 5.4%, 대조군이 8.9%로서 바닥보강에 따라 발생은 3.5% 감소하여 바닥보강의 효과를 보였다.

또한 평사에서 3주령이후 매주 깔짚을 교환하면, 흉부수종 발생율은 무교환의 대조군보다 낮았으나 유의성있게 저하하지는 않았다.

깔짚교환은 노력에 따른 효과가 적었으므로 앞으로는 깔짚재료와 계분의 처리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NK.2002.4.)